

##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이동호(배재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루터의 소명론과 디아코니아

1. 직업과 디아코니아
2. 소유와 디아코니아

### III. 루터의 종교개혁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실천과 근대복지국가

1. 루터의 국가 주도형 복지제도
2. 루터의 디아코니아 실현 - 라이스니히 공동모금함 규정
3.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사상이 현대복지 국가에 미친 영향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1.02>

---

• ABSTRACT •

---

## Martin Luther's Reformation and Diakonia

Lee, Dong Ho (Pai Chai University)

The Reformation was also a social reform movement that deeply affected the fields of service and social work. Martin Luther's theology on "Diakonia" did not only establish the fundamentals of good works and acts of charity in the church, but it also presented itself as a completely new theology, especially in the forming of social reform movements. This research first addresses Luther's theology on "Diakonia" according to one of his core subjects in his theory of justification. Secondly, this paper delves into how Luther relates to his understanding of social-economical ethics in terms of labor, vocation, worship, and service to his theology of "Diakonia." Lastly,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theology of "Diakonia" and its ideologies have been practically applied to today's welfare state. There are many Korean Christians who are still unawa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akonia" and the theory of justification. "Diakonia" is not just the means to the survival of the church. Yet, "Diakonia" is the essence and the purpose of the church. Luther did not believe that justification by faith had not relationship with service and charity. He believed that faith itself should be the act of doing good works. Hence, Christians who consider themselves righteous by faith should take responsibility in helping their neighbors.

**Key words:** Luther, Reformation, Theory of Justification, Diakonia, Service and Charity, Vocational Ethics, Calling, Worship, Welfare State

---

## I. 들어가는 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섬김과 봉사의 활동 영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 사회개혁운동이었다. 루터는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인 “이신칭의” 사상,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명제 아래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디아코니아를 풀어나간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 중 제42조 테제부터 45조 테제<sup>1)</sup>까지 디아코니아와 관련하여 면죄부 판매가 올바른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켰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면죄부를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루터의 디아코니아 신학사상의 출발점은 의인론이다. 루터는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디아코니아 사상을 풀어나간다. 루터는 죄인인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를 성취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1)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Schlosskirche)에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조 조항을 내건다. 그중에 42조항에서 45조항은 그 당시 잘못된 자선사업을 비판하고 새로운 디아코니아적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테제 42조에서 45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42조. “면죄부를 얻는 것은 자선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교황의 생각이 아니라면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43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44조.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행위들로 성장하며 인간은 더욱 나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면죄부를 통해서 인간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리고 그 대신 면죄부를 주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지원용 편, 95개조 논제 해설, 『루터선집』 제5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4), 194-195.)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 사람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변화된 존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비로써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교회규정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선행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선행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스콜라주의적 공로사상 즉 ‘이신행위론적’ 입장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하면서 ‘이신칭의’의 정당성과 그것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루터에게 디아코니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어떻게 행위 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었다. 루터는 ‘무엇이 선한 행위인지’, ‘무엇을 해야만 선한 행위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의 근거가 되며, 목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sup>2)</sup> 그에게 있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중심은 하나님이다.<sup>3)</sup> 루터가 이야기 하는 선행이란 의롭고 선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요8:29).<sup>4)</sup>

루터는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Von den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라는 논문을 통해 역설적인 대명제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위에 자유로운 주인이며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2) 루터는 “선행에 관하여(Von den guten Werke)”라는 그의 설교에서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는 기도, 금식, 자선 등과 같은 외적인 종교 활동을 선행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선행이 무엇인지 풀어나간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가장 첫째 되고 최고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왜냐하면 모든 행위들은 이런 행위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WA 6, 204.)

3) 김한옥,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부천: 실천신학연구소, 2004), 302.

4) WA 6, 205.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sup>5)</sup> 이 두 명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과 같이 보이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밝혀주는 명제이다. 이 역설적인 명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복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했고 또한 이 복음은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웃을 섬기게 만든다는 견해가 담겨져 있다. 인간을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구분한 데서 출발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자유로운 주인이나 세상적인 삶에는 모든 일에 봉사하는 종이라는 것을 주장한다.<sup>6)</sup>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공덕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 “그리스도인은 만물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물에 대하여 자유로우므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7)</sup> 더불어 루터는 바울에 의지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강조하였다.<sup>8)</sup> 루터 당시 스콜라주의 신학은 교회 규정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선행으로 보았고, 이러한 선행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공덕주의에 입각한 칭의론을 보편화시켰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부자유한 병든 자, 구걸하는 자들, 빈곤자들

---

5) WA 7, 21.

6)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사람은 영적이며 육체적인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표시하는 영적인 본성에 의하면 그는 영적, 내적 혹은 새사람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이 육이라고 표현하는 육체적인 본성에 의하면 그는 현세적, 외적 혹은 옛사람이라고 불린다”(Martin Luther, “두 종류의 의”, John Dillenberger/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96.)

7) Martin Luther, “그리스도의 자유”, John Dillenberger/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108.

8) 이성덕,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사회복지”, 『대학과 선교』 제10집 (2006), 119.

을 구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결자들을 더욱 만연시키는 사회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sup>9)</sup> 당시 교회가 인간의 선행업적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킨 것이요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아래 떨어뜨려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는 공덕주의적 칭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가로 막았으며, 그로인해 인간을 죄와 죽음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였다. 이에 반해 루터는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어 내고 더 나아가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루터의 칭의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서 이제 인간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 존재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유인이 된다. 선행과 섬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자의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공덕주의로 빠져들게 할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러나 루터의 칭의론은 선행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의 칭의론 사상은 행위 없는 구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아래 있는 인간이 이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은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한다. 죄의 굴레에 놓여진 인간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업적주의, 율법, 착취,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귄으로 해방시킨다.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그리스도와의 사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루터의 칭의론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회복이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죄인들은 이

9) 김옥순, “종교개혁 핵심 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 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53집 (2017), 195.

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 용납되며, 종된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는 이제 이웃 앞에 섬기는 자로 서게 된다.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자유함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자기만족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더불어 사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실질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sup>10)</sup>

루터가 그의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회와 사회의 도전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앙인의 진정한 자유는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자유를 사는 삶이다. 신앙인의 진정한 자유는 인간을 그의 외적인 모습들, 즉 성별, 인종, 경제력 혹은 사회적 배경과 지위에 의해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자유이다.’<sup>11)</sup>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낸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적 자유이다. 세상 속에서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인간의 존엄함을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빈곤층들이 부에 대한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내지 복지법률에 대한 요구를 촉구시켜야 한다.<sup>12)</sup> 이를 위한 신앙인의 소명으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는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하며, 나눔의 의미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10) 김한옥,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307.

11) 김옥순, “종교개혁 핵심 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 실천에 관한 연구,” 208.

12) 위의 책, 209.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 안에 나타난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단순한 선행이나 자선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신학으로 그리고 사회개혁운동으로 나타났다. 루터가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루터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를 연결하여 만인사제설에 기초한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단순히 사유재산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이 되기 위해, 특별히 소유와 디아코니아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섬김과 나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루터의 디아코니아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의 디아코니아 실천이 19세기 후반 독일에 끼친 영향을 통해 종교개혁의 유산인 디아코니아 사상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루터의 소명론과 디아코니아

### 1. 직업과 디아코니아

기독교 역사에서 직업이라는 개념을 순수한 세속적 활동을 나타내는 특수한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이다.<sup>13)</sup> 루터는 중세의 성직주의와 수도원주의를 반대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소명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루터는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vocatio’를 독일어 ‘Berufung’으로 번역함으로써 오직 영적 직무로, 부름 받은 자에게만 사용하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세속영역까지 확장 적용함으로써 수도사 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13) 강원돈,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성남: 민들레책방, 2005), 167.

된다.<sup>14)</sup>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직업의 가치를 둠으로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평등하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어떠한 직업이라도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루터는 그의 논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An den christlichen Adel)”라는 글을 통해 “교황, 주교들, 사제들 및 수사들을 영적 신분이라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은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sup>15)</sup>라고 이야기 하며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사제들로 성별되기”<sup>16)</sup>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영적 신분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 다른 아무 차이도 없다”<sup>17)</sup>고 이야기 한다. 노동의 신성을 강조한 루터는 모든 직업을 주님을 향한 성직으로 이해하였기에 성직자나 일반 직장인이나, 세상의 왕이나, 행정가나 기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고, 모든 직업이 소명으로 이해되었기에 차별이 없는 것이었다.<sup>18)</sup> 따라서 루터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위임에 따라 부르심으로 받는 소명이 각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sup>19)</sup>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선 자리에서 그를 불러 각기 다른 직업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믿음을 통해 얻은 자유 안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sup>20)</sup>

---

14)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285.

15) Martin Luther,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지원용편, 『루터선집』 제9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3), 142.

16) 위의 책, 142.

17) 위의 책, 142.

18)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권 제2호, (2011), 289.

19)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 beitraege zur sozialen Verantwortung der Kirche*, (Heidelberg: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93), 51.

루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직업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인간과 직업을 고정 시켰던 중세 신분제도를 깨뜨리고 직업을 이웃 봉사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길을 열었다.<sup>21)</sup> 루터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을 위한 일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입은 성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이웃사랑의 일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가르친다.<sup>22)</sup> 루터의 전반적인 사회윤리, 특별히 그의 디아코니아 활동은 예배로 이어진다. 루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sup>23)</sup>고 말하면서 교회의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과 공동체적 활동을 강조하였다. 루터에게 있어 직업과 노동이란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로 이해되어진다.<sup>24)</sup> 루터에게 있어서 예배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세상 밖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부르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행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불어 그 순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서있게 된다.

루터가 이야기 하는 직업윤리의 중심적인 가치는 자아성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 그의 직업윤리 의식은 노동에 대한 생산, 수입, 소득 그리고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20) 강원돈,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171.

21) 위의 책, 171.

22)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 288-289.

23) 재인용,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39.

24) 손규태, 『개신교 윤리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9.

이웃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25)</sup> 루터는 직업과 노동의 의미를 단순히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얻는 소득 사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루터에게 노동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로 더불어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이며, 이 노동에 대한 소명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받은 것이며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노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소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루터는 이 소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루터는 게으름을 도둑질의 한 형태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다른 사람의 수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6)</sup>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각자 소명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 이웃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루터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져 있던 구걸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는데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구걸을 조장하던 구걸 수도승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sup>27)</sup> 루터에게 있어서 노동과 반대되는 구걸이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다. 루터는 직업과 노동을 이웃사랑의 증거요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구걸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깎아 내리는 행위요, 무질서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이다.<sup>28)</sup>

루터의 소명론에 나타난 직업윤리를 통해 우리는 직업과 노동이 칭의

---

25)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49.

26)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693-694.

27)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 관점에서 본 요한 헨리히 비헤른의 복지사상,”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 (2007), 10-11.

28) Guenter Ruddat / Gerhard K. Schaefer, *Diakonisches Kompendium*, (Goe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KG, 2005), 48.

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sup>29)</sup> 직업이나 노동이 자기 자랑의 근거가 아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자유로운 활동이며 이 자유로운 활동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불어 이 기쁨은 나를 통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든다. 물론 대량실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또 잃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직업 소명론이 적합한 설득력을 갖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대량실업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지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문제는 현대 사회의 구조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sup>30)</sup> 루터의 직업윤리를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소망하는 희망 윤리의 의식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윤리를 구분하여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부르심을 소망하는 희망윤리의식이란 직업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이들이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각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윤리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입은 것임을 이해시키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29) 우병훈,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 제57집, (2018), 126.

30) 강원돈,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172.

## 2. 소유와 디아코니아

루터의 소유론(Eigentum)에 대한 입장 역시 디아코니아와 관련하여 그의 노동과 직업윤리처럼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루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재산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자신을 위해서 소유를 유지하는 것은 선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 없고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재산과 양식은 이웃을 더 잘 돕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sup>31)</sup>

루터는 십계명의 제 7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토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루터는 재산소유를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법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도록 이야기 한다. 루터의 제 7계명 이해는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켜내는 것과 개인의 재산 소유를 보호하고, 재산 축적을 정당해 주는 것이 아니다. 루터가 이야기 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개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과 나누라는 사상이 더 깊이 담겨져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소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이다.<sup>32)</sup> 루터에게 소유란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소유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소유하려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만족과 삶의 목표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31) 재인용,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52.

32) 위의 책, 53.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루터에게서 소유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좋은 선물이다.<sup>33)</sup> 이 선물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 개인의 사유재산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산이며, 개인은 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즉 이제 너의 재산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의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재산 소유주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한 경제 원리는 “공동사용”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sup>35)</sup> 부의 과도한 축적은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로부터 공공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파괴하는 행위로 과도한 부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다.<sup>36)</sup> 루터가 이해한 직업은 항상 자신의 생계보장과 더불어 동시에 전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었으며, 각자 개인의 재산과 소유 역시도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었다. 루터에게 재산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복지사회를 위한 국가경제의 전선을 발전시키는 기능으로 보았다.<sup>37)</sup>

결과적으로 루터가 이야기 하는 소유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물질적 이익을 넘어서 이웃을 더 잘 돕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내어놓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돌보고, 도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이 있는 한, 노동을 통해 얻은 물질을 다시 공동체

33) 위의 책, 53.

34) 위의 책, 54.

35) 김옥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4집, (2013), 425.

36)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3), 100.

37)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53.

에 내어주어야 한다. 이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또 다시 세금으로 내어 놓음으로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38)</sup> 루터가 이해한 개인의 소유란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이 공동체를 위한 의무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의 디아코니아적 입장에서 바라본 소유론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섬김이 자칭 무조건적인 물질과 부의 나눔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자칭 엄청난 사회비용이라는 부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국가가 약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정책<sup>39)</sup>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때,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노동

38) 김옥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425.

39) 우리나라 경제 성장론은 “고용 없는 성장”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론에 입각한 국내 경제는 내수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보다는 수출을 통해 채산성을 맞추는 거대기업들의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하여 세계경제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들과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줄어들기는커녕 끊임없이 증가해 왔고, 어느 때에는 극적으로 늘어나기까지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타개책은 자본과 상품을 국외로 밀어내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가난이 확산되고 구조적인 가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변수들이 요동치지 않는 튼튼한 내수 경제에 바탕을 둔 건강한 개방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내수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산업 발전과 변화의 추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강원돈, “또다시 등장한 성장주의 담론을 경계하며” 『Kang Won-Don's Essay』, (2018. 5. 14.) <http://socialethics.org/wwwb/CrazyWWWBoard.cgi?db=essay>)

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을 통하여 자립함으로써 소득 가운데 세금을 내어 또 다른 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노동을 통한 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소득 그리고 조세납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능력을 창출해 내고, 노동을 통한 소득증대는 조세납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받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sup>40)</sup>

### III. 루터의 종교개혁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실천과 근대복지국가

#### 1. 루터의 국가 주도형 복지제도

16세기 종교개혁시대는 근대 사회복지 운동의 출발로서 그 특징은 중앙화, 평신도화 그리고 합리화였다.<sup>41)</sup> 이 시대에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운동들이 중앙으로 통합되고, 디아코니아 운동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관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교회의 영역에서 점차로 일반 사회복지 기관들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sup>42)</sup>

루터는 자선가들의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덕주의에 입각한 “이신행위론”에 대한 폐단과 이로 인한 절대적 부에 편승하여 타락의 나라를 달리게 한 수도원의 재산 증식,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미화되어 구빈원을 이용해서 문전걸식한 자들의 증가,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인식으로 인한 걸식자들의 양산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sup>43)</sup> 특히 루터는 탁발수도단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삼게 되

40) 김옥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426.

41)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88.

42) 위의 책, 188.

43) 최무열,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 -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눔의 집, 2008), 135-137.

는데, 1519년 그는 '고리대금에 대한 짧은 설교'에 붙인 소견에서 구걸에 대해 반대하면서 탁발수도단이 "모든 것을 구걸 자루에만 의지한다고" 비판하였다.<sup>44)</sup> 이어서 그는 1년 후 1520년에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란 논문을 통해 귀족들에게 구걸의 철폐와 탁발수도승 해체를 요구하게 된다. 루터는 그의 논문을 통해 모든 귀족들에게 '만일 가난한 자들의 착취와 같은 불의가 일어나면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상기시켰고, 특히 모든 구걸을 철저히 금지시켰다.<sup>45)</sup> 루터는 구걸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곤경 때문에 구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갈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 하며, 세속 제후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공의회를 통해 모든 지역에 그들의 교회를 설립하여 구걸을 폐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의 책임을 지도록 이야기하였다.<sup>46)</sup> 루터는 세속 제후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눈앞에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빈민에 대한 구호의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했다.<sup>47)</sup> 루터는 공덕주의에 입각한 구원의 이데올로기 사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선의 폐단과 결식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자선에 대한 개혁에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구조가 국가사회 복지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이러한 국가주도형 사업을 통해서 항구적인 빈민문제의 해결 그리고 공동기금에 의한 조직적이며 합리

44)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이론서』 (오산: 한국디아코니아 연구소, 2009), 102.

45) Reinhard Turre, *Diakonik - Grundlegung und Gestaltung der Diakonie*,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Gmbh, Neukirchen-Vluyn, 1991), 17.

46) 위의 책, 17.

47) Gerhard K. Schaefer/ Volker Herrmann, "Geschichte Entwicklungen der Diakonie von der Alten Kirche bis zur Gegenwart im Ueberblick", Volker Herrmann/Martin Horstmann, *Studienbuch Diakonik - biblische, historische und theologische Zugänge zur Diakonie band 1*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2008), 148.

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사회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sup>48)</sup>

루터의 사회개혁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특이한 점은 이전까지 교회와 수도원이 주도한 자선 활동들이 정부 관리들과 연합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sup>49)</sup> 루터는 당시 사회문제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가 국가보다 앞선 구제행위를 시행하기보다 두 번째 위치에 서서 국가와 협조하여 국가의 관리를 책임 지도록 하며 모든 도시는 국가주도 하에 도시의 빈민을 위한 구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재원 마련에 대해 교회가 전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교회의 영지수입과 성도들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나아가 조직적인 구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0)</sup> 루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그 당시 만연되어져 있던 공덕사상의 폐해로 나타난 구걸행위를 폐지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떤 분명한 기준 아래에 구분하고 돌보는 사회복지 계획을 세우고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루터의 주장은 단순히 구걸자와 탁발수도승들의 사회적 폐해를 넘어서 지금까지 걸인들과 구걸자들을 양산한 잘못된 스콜라주의적 업적주의 신학과 교회론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이 문제를 교회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다.

루터가 정부와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디아코니아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을 가능케 한 배경은 그의 “두 왕국론”의 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회복지 제도를 건설하여 사회질서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루터의 두 왕국

48) 최무열,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 -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140.

49)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190.

50)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694.

론은 기독교와 세속국가와의 관계의 충돌과 대립보다는 보전과 공존을 모색한다.<sup>51)</sup> 두 왕국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양손에 칼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통치하신다.<sup>52)</sup> 칼과 복음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견제기능을 한다. 루터에게 국가 공권력은 공동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sup>53)</sup> 루터의 두 왕국론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제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기초들을 제공하였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공적 신앙에 대한 그의 주장이다.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의 차원에서도 주장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또 “공적인 신앙에 대한 루터의 개념은 교회와 국가 관료들과 협력으로 특징지어 졌으며, 이로 인해 16세기 정교한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sup>54)</sup>

## 2. 루터의 디아코니아 실현 - 라이스니히 공동모금함 규정(Leisniger Kastenordnung)

루터는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루터는 시의회가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 자선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이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 일은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비생산적인 노력들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55)</sup>

51) 위의 책, 695.

52)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83-184.

53)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55.

54)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190.

루터는 여러 도시에서 디아코니아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 제도들을 개혁하게 만든 새로운 법령제정을 위한 초안 작업에 기여하였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개혁의 첫 구체적인 도약은 루터의 비텐베르크 헌금 자루규정에서 이루어졌다.<sup>56)</sup> 루터는 예배와 디아코니아의 개혁을 결합한 사회복지 조치들인 “비텐베르크 직제”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루터는 대부분 개혁적인 법률제정에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들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비텐베르크 조문은 “공동 헌금은 가난한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제동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접근은 많은 도시들에 퍼져나갔고 크게 영향을 미쳤다. 루터의 디아코니아 신학에서 출발한 복지 프로그램은 개인적이고 교회중심적인 자선 행동의 차원에서 공적이고,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복지 제도로의 변경을 가져왔다. 특히 루터는 교회의 관할 구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고를 설치할 것을 권했고 그 결과로 1523년 “라이스니히에 공동모금함 금고규정”을 도입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으로 첫 번째 개신교 안에서 나타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sup>58)</sup>

라이스니히 공동모금함의 근본사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함에 나타난 가난한 자 돌봄은 성서에 기초하며 신학적으로 성찰된 것이었고 둘째, 지금까지 가난한 자를 돕는 제단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다면, 이 공동함을 통해 모든 재원 조달 가능한 수단들이 관리되어 효율적으로 사

55) 위의 책, 192.

56) 홍주민,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 마틴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237-238.

57) 재인용, 김주한, 『마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193.

58)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제46집 (2004), 276.

용하게 되어졌다. 예를 들어 사회행정당국이 만들어졌는데, 시의회는 그들 가운데 명예직으로서 빈민 구호인을 두고 그들이 빈민구호법을 실천하도록 책임지게 했다. 그들에게 유급 노동력이 조달되었는데 그 노동력은 디아콘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는 임무가 있었고, 물자를 나누어주는 일을 집행하였다.<sup>59)</sup> 셋째, 가난한 자 돌봄은 예방적인 돌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돌봄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분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이스니히 공동함의 가난한 자를 위한 돌봄은 이제 기관적으로 조직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이며 시민적으로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의 가난한 자 돌봄이었다.<sup>60)</sup> 이 공동함은 종교개혁의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많은 도시들은 개신교 교회공동체규정과 공동함 규정의 도움으로 저지, 가난 그리고 실업의 문제들을 끌어안았다.<sup>61)</sup>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루터가 생각한 교회공동체의 주도에 의해서 공권력이 함께하는 공동복지 생각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시의회 행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곳곳에서 집사 직위가 소멸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는 결과<sup>62)</sup>로 나타나게 되었다.<sup>63)</sup> 그래서 종교개혁 후기

---

59) Gerhard K. Schaefer/ Volker Herrmann, *Geschichte Entwicklungen der Diakonie von der Alten Kirche bis zur Gegenwart im Ueberblick*, 148.

60)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 섬김과 봉사 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을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한들 출판사, 2011), 91-93.

61) 위의 책, 56.

62)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교회내의 봉사활동에만 그 역할을 제한시키고 교회 밖 사회는 절대주의 국가의 관료들에 의해 복지경찰제도로 이끌리게 된다. 더불어 루터의 금교규정에서 금교 이사나 빈민구호자는 정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디아콘, 집사와 동일시 되었지만, 이 집사직의 임무는 목회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그들의 작업 내용은 세속적이었다.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복지 사상,” 13.

63)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68.

로 볼 수 있는 30년 전쟁 말기에는 종교개혁적인 디아코니아의 위기를 가져왔다. 즉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목사 직무가 이제 영적 차원으로만 위축되어졌고, 목사의 영적 책임 이외의 모든 책임들은 권력을 쥔 공권력 기관에 넘겨졌다.<sup>64)</sup>

### 3.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사상이 현대복지 국가에 미친 영향

루터는 원래 교회 공동체가 주도해서 공권력과 협동적인 디아코니아를 수행하려고 의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졌다. 루터는 처음부터 공권력을 수용하였다. 그 이후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종교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권력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또한 개신교 내부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 인도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디아코니아 활동은 오늘날 복지 국가 모델을 고양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극이었다.<sup>65)</sup>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섬김과 봉사는 개신교 내방선교의 창시자 (Gründer der Inneren Mission der Evangelischen Kirche) 불리우는 요한 힌리히 비헤른<sup>66)</sup>(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비헤른은 독일의 디아코니아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64) 위의 책, 16.

65)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103.

66) 현재 독일의 디아코니아 기관은 약 31, 000개이고 46만 여명의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 70만 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들과 100만 이상의 의료침대나 수혜를 제공하는 등, 디아코니아 실천운동은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직원 중 26만 명 정도가 고정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양로원, 청소년 기관, 장애인 기관, 그리고 병원에 속하여 있다. 특히 독일 전체 장애인 시설의 1/2, 유치원의 1/4, 병원의 1/10이 디아코니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홍주민,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독일의 디아코니아학의 형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8호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05년), 238-239.

사상가이자 실천가였으며, 내방선교(Die Innere Mission)의 설립자로 기독교의 사랑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한 인물이다.<sup>67)</sup> 그는 루터의 만인사제적 사상을 사랑의 실천과 연결하였고, 루터의 라이스니히 금고규정의 정신에 따라 교회와 사회의 영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디아코니아 활동을 펼쳐나갔다.<sup>68)</sup>

내방선교는 사회구조의 틀 안에서 디아코니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스마르크 정권의 사회법제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이 결과 디아코니아 전통의 영향을 받은 현대 복지 국가들 중에서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입법화”되었다.<sup>69)</sup> 그는 1881년을 출발점으로 해서 1883년부터 1889년 사회보장법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결과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근무 장애보험과 노후 연금보험이 제정되었다.<sup>70)</sup> 비스마르크 시대에 표방한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은 사회관료주의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실행이었으며 신앙인의 사랑을 배제시킨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디아코니아 사상은 현대 복지국가를 형성<sup>71)</sup>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sup>72)</sup>

67) 강원돈,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오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6), 31.

68)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복지 사상,” 34.

69) Theodor Strohm, *Diakonie und Sozialethik* 26.

70) 홍주민, “섬김의 르네상스,” 『기독교사상』 4월호(통권 제592호), (2008), 233.

71) 루터의 복지원칙과 영향은 16세기의 중앙화된 빈자구호를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도 루터의 사고를 종교개혁과 함께 받아들였다. 종교개혁은 복지사업의 세상적 구조와 사회정책의 새로운 발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276.)

72)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104-105.

#### IV. 나가는 말

우리는 종교개혁이 단순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내적인 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해 특히 섬김과 봉사라는 활동 영역 안에서 복지개혁의 틀을 이루어 냈음을 확인했다.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칭의론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책임에 대하여 새로운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사회윤리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을 본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그의 소명론 안에서 살펴보았다. 루터는 인간과 직업을 고정시켰던 중세신분제도를 깨뜨리고 직업을 이웃봉사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길을 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구분도 구별도 없으며 그들의 직업과 노동의 결과가 이웃을 위한 일이어 그 일이 무엇보다도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이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입은 성직이요 예배임을 가르쳤다. 루터의 직업 소명론이 가지는 가치는 퇴색되지 않았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되는 직업이란 갑과 을을 구분 짓는 잣대가 된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 짓는 잣대가 되어버린 직업윤리 의식, 있는 자 만이 “갑”이 되고 없는 자는 “을”이 된다는 새로운 계급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된 이러한 직업윤리 의식은 섬김이 아닌 착취와 억압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루터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루터의 직업윤리의 중심적인 가치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이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직업이 곧 예배가 된다는 루터의 직업윤리 의식을 통해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다시 배우게 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 짓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디아코니아를 칭의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섬김과 봉사와 무관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앙자체가 선한 일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코니아를 신앙의 본질로 이해해야 한다. 기도, 금식, 율법준수 등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먼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준다.

## 참고문헌

- 강원돈.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오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6.
- \_\_\_\_\_.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성남 : 민들레 책방 2005.
- \_\_\_\_\_. “기독교 사회윤리 관점에서 본 요한 헨리히 비헤른의 복지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제14집 (2007), 7-41.
- 김한옥.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부천 : 실천신학연구소, 2004.
-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 섬김과 봉사 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을 위한 신학적 성찰』. 서울 : 한들출판사, 2011.
- \_\_\_\_\_. “종교개혁 핵심 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 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53집 (2017), 185-215.
- \_\_\_\_\_.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4집 (2013), 411-442.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개신교 윤리 사상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우병훈.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 제57집 (2018), 72-132.
-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2002.
- 이성덕.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사회복지.” 『대학과 선교』 제10집 (2006), 323-345.
- 최무열.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 -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 나눔의 집, 2008.
-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 서울 : 복있는 사람, 2017.
-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2003.
-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집 (2011), 285-312.
-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 디아코니아 신학적 실천을 위한 이론서』. 오산 :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09.

- \_\_\_\_\_.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제46집 (2004), 265-296.
- \_\_\_\_\_. “섬김의 르네상스.” 『기독교사상』 4월호(통권 제592호), (2008), 228-238.
- \_\_\_\_\_.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 마틴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221-253.
- Dillenderger, John/ 이형기옮김. 『루터 저작선』.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 Martin Luther / 지원용 편역. 『루터선집 제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4.
- \_\_\_\_\_. 『루터선집, 제9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_\_\_\_\_. D.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Bd. 6, Weimar : Böhlau, 1888
- \_\_\_\_\_. D.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Bd. 7, Weimar : Böhlau, 1897
- Guenter Ruddat / Gerhard K. Schaefer. Diakonisches Kompendium. Goe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KG, 2005.
- Gerhard K. Schaefer/ Volker Herrmann. “Geschichte Entwicklungen der Diakonie von der Alten Kirche bis zur Gegenwart im Ueberblick”, in : Volker Herrmann/Martin Horstmann, Studienbuch Diakonik - biblische, historische und theologische Zugaenge zur Diakonie band 1,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2008.
- Reinhard Turre. Diakonik - Grundlegung und Gestaltung der Diakonie,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Gmbh, Neukirchen-Vluyn, 1991.
- Theodor Strohm, Diakonik und Sozialethik - beitraege zur sozialen Verantwortung der Kirche, Heidelberg : Heidelberger Verlagsanstalt, 1993.
- 강원돈. “또다시 등장한 성장주의 담론을 경계하며” 『Kang Won-Don's Essay』, (2018, 5, 14.) <http://socialethics.org/wwwb/CrazyWWWBoard.cgi?db=essay>

논문투고일: 2018년 6월 26일

심사개시일: 2018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종교개혁은 섬김과 봉사의 활동 영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 사회개혁운동이었다. 루터의 신학 사상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로서 단순한 선행이나 자선행위를 넘어 새로운 신학과 사회개혁운동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첫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인 핵심주제인 칭의론을 중심으로 루터의 신학적 사상 안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루터의 사회 - 경제적 윤리 관점에서 루터의 소명론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노동, 직업, 예배 그리고 섬김이라는 주제들이 디아코니아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의 실천적 영역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사상이 현대 복지 국가에 어떤 영향력을 부여했는지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디아코니아를 칭의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요 목적이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섬김과 봉사와 무관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앙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디아코니아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도, 금식, 율법준수 등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준다.

**주제어:** 루터, 종교개혁, 칭의론,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직업윤리, 소명론, 예배, 복지국가

---